

CEO 동정

강원본부 건설현장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5월 10일 남강릉, 안인역 등 강원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원주~강릉 철도건설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했다.

CEO 동정

영남본부 건설현장 방문



강영일 이사장은 5월 13일 모량고개, 신포항역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한 철도건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CEO 동정

정상화 대책 점검회의 주재



강영일 이사장은 5월 15일 본사 21층 상황실에서 간부 50여명과 함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정상화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전사적인 공유와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CEO 동정

체코 교통부 장관 일행 접견



강영일 이사장은 5월 19일 한국의 철도 인프라 시찰을 위해 방한한 체코 Antonin Prachar 교통부장관 일행과 면담하며 체코 철도에 대한 양국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철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복주택 가좌 주택지구 건설 본격 추진


- 가좌지구 현장에서 '안전시공 다짐' 행사 시행 -

행복주택 가좌지구(25,900㎡, 362호) 공동사업 시행자인 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는 5월 14일 오후 3시 가좌지구 현장에서 행복주택 1호 사업인 가좌지구의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 날 행사에서 3개 기관은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과 함께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입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튼튼하고 편리한 주택을 계획대로 안전하게 건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공단은 철도건설 전문기관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철도 운행선 공사구간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품질 확보, 사업비 절감 등을 목표로 가좌지구 인공지반 구조를 공사관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올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이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사업시행 세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상임이사 및 소속장 직무청렴 계약' 체결

-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 약속 -

기획혁신본부는 지난 5월 8일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고 일선 경영진의 투명한 업무추진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고자, 상임이사와 본사 실·원장 및 지역본부장 등 본부장급 직원 10명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현장까지 윤리 의식 강화 및 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직무청렴계약 체결 대상을 임원뿐만 아니라 지역본부장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아울러 이번 직무청렴계약에서는 부패방지법을 위해 부당이익 수수금지, 공정한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공단 퇴직자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 금지, 직무관련자를 임직원 및 업체에 소개하여 특혜 등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추가하였다.

이번 청렴계약을 체결한 김계용 건설본부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전담예우 근절, 공익성과 활성화 및 비정산적 관행 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강영일 이사장은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조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철도에 대한 열정과 절제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겸비한 철도미니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부조리와 부패 등 청렴에 반하는 일들은 절대 비호 받지 못 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철도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더욱 편리한 환승 가능

- 6월 발주 예정인 성남-여주 9개 철도역 대상 접근교통시설 개선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용)는 철도 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철도역에 접근하고 역에서 버스·택시·승용차·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쉽게 갈아 탈 수 있도록 역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도이용객이 대중교통으로 보다 편리하게 환승하고 승강장까지 이동거리 단축 등을 위해 2013년 제정된 '철도설계지침(연계 교통시설편)'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발주 예정인 성남~여주 복선전철 구간의 9개 철도역부터 역광장에 접근교통시설을 전면 적용한다.

* (접근교통시설) 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렌터카 등의 전·출입 대기, 우·장차 등 위한 시설

성남~여주 구간에 신설되는 철도역에는 ▲모든 역사 출입구와 버스·택시 베이(Bay)로 연결되는 이동로에 는, 빗, 햇빛 등을 피할 수 있는 캐노피와 셸터(Shelter)가 설치되고 ▲역사와 접근 교통시설간 최단 거리 연결을 위해 교통광장(버스, 택시, 승용차 승강장) 개념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상동역과 신둔역의 경우 환승 거리가 기존에 각각 98m, 88m에서 12m, 26m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또한, 부발역의 경우 역사와 승강장간 이동거리도 47m에서 26m로 단축시켰으며 모든 역사는 교통약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장애물을 제거해 '최우수 등급'의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추진 중이다.

조순형 건축설비차장은 "앞으로도 성남-여주 구간과 같이 현재 설계 중인 모든 역사에 철도 연계교통시설 설계지침을 적용하여, 철도 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사업 전문인력 '100명 양성'

- 해외 철도건설시장 본격 진출 위한 준비 완료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해외철도 건설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목표로 정부가 지원하는 신학협력사업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사업 수행을 전담할 핵심 전문인력 100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해외사업 전문인력은 2012년부터 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내대학원 등을 통해 배출된 해외철도 전공 석·박사 59명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국제철도전문가 장기교육과정 등을 수료한 분야별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된다.

사내대학원 (우송대 위탁)	철도청대학원 (한양대·중앙대 위탁)	해외건설전문과정 (한국철도협회 주관)	국제철도전문과정 (한국철도협회 주관)	계
석사 45명	박사 3명, 석사 11명	전문가 34명	전문가 7명	100명

공단은 국내 철도건설에 대한 투자가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마무리되는 2014년 말을 기점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까지 해외사업 매출액 1,611억원을 목표로 매년 해외철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2005년 중국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처음 진출한 이후 인도,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등 신공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철도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건설사업 기술자문사업을, 올해 4월에는 약 63억원 규모의 마닐라 경전철 2호선 동부 연장구간에 대한 토목설계 및 시공관리 계약을 수주했다.

인재개발처 관계자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계약 등의 글로벌 역량의 부족으로 철도건설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에서 충분히 펼칠 수 없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간의 이론교육이 아닌 업무와 학습을 병행하는 장기간의 실무·사례와 외국어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